

印度始原佛塔의 意味論的 解析*

— 불탑건축의 전래와 양식에 관한 비교론적 고찰 I —

千得琰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1. 머릿말

한국의 탑과건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원을 역시 印度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한국탑의 相輪部 모습이 印度의 시원형탑, 즉 산치탑과 매우 유사함은 우리에게 시사한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印度의 탑과를 연구했던 과거의 결과들은 탑과의 類型과 外樣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탑과가 갖는 의미나 개념의 중요성을 간과한 탓이 아닌가 한다.

印度의 시원형탑이 주는 외양적 이미지는 벽돌과 석재로 쌓아진 半球形 封墳과 주변의 장식적 부가물이다. 이들은 단순한 形而下學的 물질의 구성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주적질서와 인간의 業원을 발현하고 깨달음과 영원한 평화를 얻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다.

탑과의 연구와 이해는 이러한 內在的 의미의 탐구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외형적인 遺構에 대

한 연구는 이러한 본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가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탑과의 내재적 의미탐구의 한 시도이다. 탑과의 출발은 어디에서 부터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그 구성요소들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그 많은 중생은 탑과에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業원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은 다소 추론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재적의미를 찾음에 있어서는 방법자체가 다소 한정되어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始原佛塔의 形成과 變貌

(1). 佛塔以前の 塔婆

탑과는 불교자체에서 유일하게 독창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불교가 발생되기 前인 吠陀時代(B. C. 2000-1400)부터 印度에서 전통적으로 내

* 본 논문은 92년도 한국과학재단 해외 Post Doc. 연구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도움을 주신 Harvard대학의 Chandra교수와 Wu Hung교수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한국탑의 뿌리를 찾되자 한 고찰, 즉 〈佛塔建築의 傳來와 樣式에 관한 比較論的 考察〉이라는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한 연구중에서 第1報이다.

려오던 것으로¹⁾ 釋尊의 在世時에도 존재하였으며, 釋尊이 入滅하자 그를 모시기 위한 분묘로 축조되었다가 그러한 형식이 후세에 까지 불탑으로 이어져 내려왔을 것으로 본다.

탑과의 어원은 고대 印度語인 Sanskrit로 Stūpa에서 찾을 수 있다. 이말은 철학서인 베다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베다는 네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들 책중 가장 오래된 리그베다는 기원전 1500-1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²⁾ 이렇게 보면 스투파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것은 적어도 서기전 15세기경으로 그 이전부터 이미 쓰여지고 있었던 것임을 알수있다.³⁾

탑은 이미 부처의 생존시에도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앞둔 바라문이 구원을 요청하자 迦毘羅城내에 여래의 사리가 있는 오래된 불탑을 중수하고 相輪堂을 만들어 그 속에 다라니를 써서 넣고 성대한 공양을 베풀고 法에 의지하여 다라니를 일곱번 외우라고 한다. 그리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또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오랫동안 복락을 누릴것이라고 했다.⁴⁾

佛經에 의하면 祇陀太子로 부터 園林을 사서 祇沓精舍를 지어 부처님께 바쳤던 것으로 유명한 給孤獨長者(本名 須達)의 起塔事實이 기록되어 있다. 즉, 부처님의 遊行으로 須達長者는 자주 부처님을 가까이 뵈지 못하게되자 부처의 瓜鬚을 얻어서 탑을 일으킨 사실이 곧 起塔法으로서 알려져 왔다.⁵⁾

또한 석가 이전의 부처인 迦葉佛의 七寶塔을

설명하는 기록⁶⁾과 석가에 앞서 입멸한 Sariputra와 Maudgalyayana의 사리를 담은 불탑이 건립된 사실이 있다.⁷⁾ 그러나 이들탑은 형태를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지속적으로 건립되어 온 인도의 전통적인 무덤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⁸⁾

(2). 佛塔의 發生

釋尊이 활동한 연대에 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B. C. 565-486說을 시작으로 B. C. 463-383 수개의 설이 있는데 100년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석존이 80세의 고령에 Kusinara의 沙羅雙樹 밑에서 입멸하자 그의 제자들이 遺體를 荼毘에 부쳐 인도의 8개국이나 나누어 각기 탑을 세우니 이를 分舍利 혹은 舍利八分이라고 한다. 이들 근본8탑 이외에 3종의 탑이 다시 추가되었는데 이들은 곧 본래 사리를 담았던 병을 가지고 香姓婆羅門이 탑을 세운 것이 그 하나이고, 또 사리배분이 끝난 다음에 온 華鉢村人이 다비한 장소의 火葬炭灰를 모아 탑을 세운 것이 두번째이고, 석존의 생존시에 須達長者의 원을 만족시켰던 瓜鬚塔이 세번째이다. 따라서 초기의 불탑은 8기라 하기도 하는 사리탑이 8기, 瓶塔이 1기, 灰炭塔이 1기, 生存時瓜鬚塔⁹⁾ 이 1기로 근본8탑 이외에도 3종의 탑이 추가되었다고 하겠다.

그 후 Maurya왕조의 Asoka왕(阿育王, 無憂王. 기원전 250년경)의 시대가 되자 석존이나 제자들의 遺骨, 유품에 대한 숭배가 크게 성행하였으며 유골이 매장된 곳에 탑이 세워졌다. 아쇼카왕 자신도 인도전역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불교포교사를 각지에 보냈으며, 그와 동시에 7개소에 매장되어 있는 佛舍利를 分骨하여 인도전역에 8만4천의 사리탑을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

1) 逸見梅濂, 「日本佛敎美術考(建築編)」, p. 28.

2) M. Winternitz, "Geschichte der Indscken Literatur", Bd. 1, 1907.

3) 尹昌淑, 「韓國塔婆相輪部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p. 6.

4) 「大正藏」, 제19권, No. 1024, 「無垢淨光大陀羅尼經」, 上, p. 718.

5) 「大正藏」, 제23권, No. 1435. 「十誦律」卷第 56, p. 415 中下.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一志社, p. 63. 에서 재인용.

6) 「大正藏」, 제22권, No. 1425. 「摩訶僧祇律」, 券第33, p. 495

7) 張文戶, 「東洋美術史」, 博英社, p. 273

8) 尹昌淑, 「韓國塔婆相輪部에 관한 研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3, p. 11

9) 「大正藏」, 제1권 No. 1, 「長阿含經」, 券第4, p. 29 下

른 이러한 내용은 설화와 같은 것이나 중국측 기록인 5세기의 <法顯傳>, 8세기의 <大唐西域記> 등의 인도기행에 아쇼카왕이 세운 것이라고 전하는 탑과를 여러 곳에서 보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三國遺事>에도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그 내용이 일치함을 알수있다.

물론 8만4천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信心이 깊은 아쇼카왕이 넓은 지역에 일시에 많은 탑을 건립한것은 결과적으로 불교전파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되었다. 이 시대에는 자이나교에서도 敎祖 마하비라가 신앙의 대상이되고 사리승배도 행하여져 많은 탑이 건립되었다. 또한 사리의 숫자가 큰 의미는 없지만 인도학자측에서는 7기의 근본탑에서 8만4천의 사리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한 반면 중국어로 번역된 불전에는 8기의 근본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¹⁰⁾

(3). 佛塔의 基本形

舍利의 8분할이 이루어진 8기의 근본탑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막연하게나마 覆鉢형이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8기의 근본탑의 소재지와 형태를 밝힐 근거가 없다. 다만 몇곳의 발굴유적들 중에서 舍利八分 때의 것으로 추정되는 스투파가 발굴되었는데 그 속에 舍利容器가 들어 있고, 日乾 또는 燒成의 煙瓦에 의하여 몇차례의 증축이 가해진 모습으로 발견되었을 뿐이다.¹¹⁾ 즉 초기에는 원형평면인 직경 8m내외의 반구형이었던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증축수리한 것으로 그 규모나 재료가 변화된 것이었다.

또한 몇권의 경전¹²⁾과 부처의 행적을 나타낸 각종 浮彫에는 복발형의 모습이 인도초기탑의 형

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한다. 「四分律」에는 신도들이 석가에게 탑을 세우도록 요청하자 탑의 형태를 方形이나 八角 또는 圓形으로 만들라 하고 그 재료에 대해서도 벽돌이나 돌, 나무로 만들라고 되어 있다.¹³⁾ 「摩訶僧祇律」에서는 迦葉佛塔의 형태를 말하면서 「아랫쪽 기단은 四方에 두루 欄楯을 지니고 위는 둥글고 이중으로 솟았으며 상부는 네모난 위에 槃蓋를 설치하고 또 상윤을 길게 표시하였다」¹⁴⁾고 되어 있다. 또한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에서는 벽돌을 사용하여 기단을 이중으로 하고 탑신위에 복발을 안치하되 높이는 뜻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위에 다시 平頭를 배치하되 높이는 보통1-2척이며 폭은 2-3척이고 상윤은 1, 2, 3, 4내지 13중이며 그 위에 寶瓶을 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⁵⁾ 「大唐西域記」에도 네모로 접어 깎아 위에 鉢을 얹어 놓고 錫杖을 세웠는데 이 탑이 석가의 가르침에 의한 최초의 탑이다라는 기록이 있다.¹⁶⁾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釋尊在世時에 이미 塔事가 있었음을 말해주며 이들은 대체로 인도초기탑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과 현존하는 인도의 탑에 의지하여 당시의 탑 역시 覆鉢形의 무덤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4). 佛塔의 起源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의문으로 스투파의 시

10) 金福庚, 「韓國의 美術」, 塔, 悅話堂, pp.12-13.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建築學大系4, p. 19.

11)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建築學大系 4, pp19-21.

12) 四分律은 408년에 竺佛念등이, 摩訶僧祇律은 416-418년에 法顯이, 그리고 設一切有部는 710년 義淨에 의하여 번역되었다.

13) 「四分律」, 제52권, 雜搖度之2, p. 957 下. 「大正藏」, 제22권, No. 1428.

14) 「大正藏」, 제22권 No. 1425. 摩訶僧祇律, 卷第33, p. 497 下.

15) 「大正藏」, 제24권,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 卷 18, p. 291 下. (上記3의 문헌에 대한 해석은 장충식의 新羅石塔研究에 의함.)

16) 玄奘, 大唐西域記 卷1

17) 松本文三郎, 「塔婆之研究」, 印度にける 佛教以前の塔と 其以後の塔 pp. 3-4. 이 문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헌에서도 이러한 추론은 많다.

원적 형태는 어디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가?

우선은 墓라는 일차적 기능과 그 형태가 등그런 모습의 구조체라는 점에서 그 기능과 형태, 의미를 갖는 유사한 유구에서 기원을 추정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원탑의 모습은 半球形의 돔, 즉 복발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1. 참조) 圓形이나 方形의 기단위에 있는 복발은 내부가 꼭차있는 반구형으로 땅에서 하늘까지 이르는 天山을 덮는 天球의 건축적인 모사품으로서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¹⁸⁾ 스투파의 覆鉢은 우주적인 산으로 표현되며 이는 西方아시아의 전설과 예술품에서 유래된 것 같다. Sumeria의 전설이 고대 인도로 옮겨 온 것이다. 즉 최초로 카오스 상태의 물에서 출현한 것은 응고된 물방울로 표현된 우주적 卵이다. 또한 물로부터 우주적인 산이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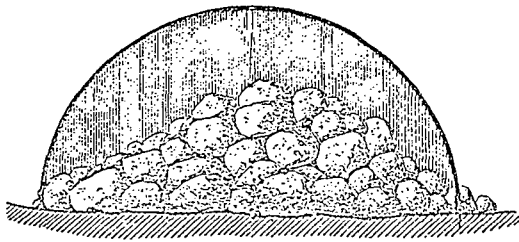


그림 1. Stupa의 시원적 형태

先史시대의 토기에서 물은 자연스럽게 물결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근원적인 산은 방추형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우주에 대한 해석은 기원전 3000년전에 돌을 쌓아 올린 무더기로서 우

18) Benjamin Rowland, "The Art and Architectur of India Buddhist", Hindu, Jain. "The Pelican History of Art", p. 79
 19) Ackerman, "West Asiatic Ancestors of the Anda," Marg, 11 Ackerman, p. 17.

주적 산을 표현한 Susa의 刻板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²⁰⁾ 이와 비교할만한 것은 미노아시대의 刻板에서 볼 수 있다.²¹⁾ 또한 메소포타미아나 예집트, 그리고 인도의 건축에서는 유사한 우주적도상이 원통형이나 방추형의 형태로 구상화된다.²²⁾

초기역사시대인 Nasik의 제2기 유적에서 발견된 2개의 테라코타 스투파는 음각되었고 점으로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²³⁾ 그림 2. 에서와 같이 이들은 인더스계곡에서 발견된 linga type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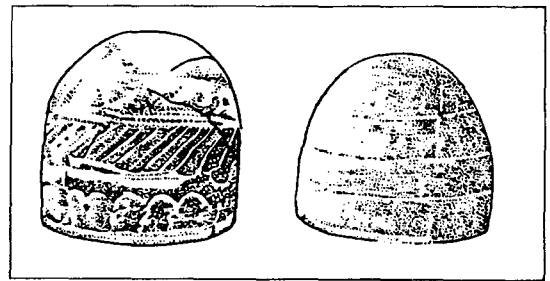


그림 2. 테라코타 Stupa

볼탑에 더욱더 가까운 것은 기원전 6-7세기의 것으로 간주되는 페니키아의 유적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유구는 아무리트의 분묘로 추정되는데²⁵⁾ 그림 3. 에서와 같이 高塚으로 死體는 지하에 매장되고 그 위에 탑 모양의 건물이 서있는 모습이

20) Ackerman, "West Asiatic Ancestors of the Anda," Marg, 11, pp. 16-23
 21) Hutchinson, "Prehistoric Crete", 1962, p. 206, fig. 39
 22) Ackerman, op. cit., 16-23
 23) Sankalia, "Report on the Excavation' at Nasik and Jorwe", 1950, pl. 23
 24) Marshall, "Mohenjo-daro and the Indus Valley Civilization", 1931, pl. 130.
 25) Irene N. Gajjar, "Ancient Indian Art and the West", p. 112.
 尹張燮, 「西洋建築史」, 동명사, 54

다. 기단은 네마리의 사자가 조각된 방형이고 그 위에 프리즈로 장식된 2개의 원통형 축부가 올려져 있으며 최상부에 반구형의 돔이 놓여 있다. 특히 이 형태를 힘을 발생하는 男根으로 유추하는 해석이 있어 흥미롭다.²⁶⁾ 이 분묘의 형태는 후에 나타날 스투파의 출현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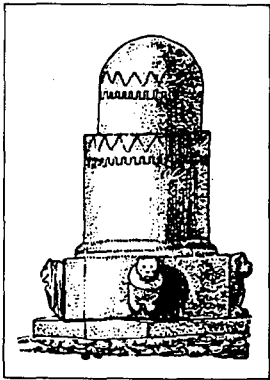


그림 3. 아무리트의 분묘

이 아무리트의 분묘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축부에 있는 階段式 장식과 齒形장식인데 이는 단형 피라미드나 Sunga시대의 齒形장식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⁷⁾ 이 장식들은 선사시대 토기의 문양에서부터 페니키아의 분묘, 바르후트와 산치의 조각품, 불탑등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西方아시아와 인도의 선사시대부터 약 紀元元年까지의 끊어질 수 없는 연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²⁸⁾

물론 불탑 以前의 탑과는 그 형태를 파악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인류학적인 측면의 積石習慣이 원시적인 형

태의 累石(혹은 土石)壇을 이루고, 이러한 등그런 壇이 탑의 기원이 되었다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²⁹⁾ 그 이유는 탑과의 개념에 積聚, 累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탑과의 형태 또한 이를 쉽게 나타낼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積石, 累石의 예는 印度 Gond族의 돌더미, 프랑스의 投石習慣³⁰⁾, 蒙古의 오보, 한국의 속칭 선왕당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³¹⁾ 이는 죽은 사람을 葬事지낸 墳墓로서나 원시적인 祠堂이나 祭壇으로서, 또한 마을의 경계표나 이정표로서 이용된 것이기³²⁾ 때문에 여기에서 탑과의 기원을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과 같은 積石의 습관 이외에도 흙을 쌓아올린 만두모양의 墳丘에서 유래한다거나 중앙아시아 方面의 大墳丘의 영향이라는 주장도 있다.³³⁾ 다만 이들은 최초의 상징적인 기원이었지 그것만으로는 Stupa와 같은 半球形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구형과 유사한 모습은 Dome형의 주거와 묘에서 유래했으며, 죽은 사람이 생전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려고 주거와 유사한 묘속에 유골을 納藏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일응 타당한 얘기라할 수 있겠다.³⁴⁾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계의 각 지방의 墓制에서 납골실이 반구형의 내부에 많은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예는 Veda시대의 동굴분묘나 초기분묘가 Dome형을 하고 있고 이는 Veda시대

26) Ackerman, op. cit., p. 20

27) Jairazbhoy, "Foreign Infuence in Ancient India", 1963, p. 35

28) Irene N. Gajjar, "Ancient Indian Art and the West", p. 112.

29) 張忠植, 「新羅石塔研究」, 일지사, p. 63.

30) M. Eliade, "Traite d'Histoire des Religions", 1946, Paris, p. 190.

31) 米内山庸夫, 「蒙古草原」, 改造社, pp. 3-4.

孫晉泰, 「朝鮮의 累石壇과 蒙古의 오보에 就하여」, 손진태선생전집, 태학사, pp. 195-219.

32) Debala Mitra, "Buddhist Monuments", The Indian Press Pvt. Ld. 1971. 張忠植 前掲書 63쪽에서 재인용함.

33)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p. 36.

34) Longhurst, "The Evolution of the Stupa", The Story of the Stupa, 1936, p. 12

의 움집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³⁵⁾ 그림 4.에서와 같이 아리안의 주거는 평면이 원형이었고 주된 재료는 대나무와 역새풀로 똑바로 세운 대나무를 꼭대기에서 묶어 지붕이 돔처럼 되었다.³⁶⁾ 그림 5.와 같이 둥그런 돔형의 지붕을 한 주거는 기단을 덮고 있으며, 반면 스투파의 돔은 기단내에 올려져 있는 것이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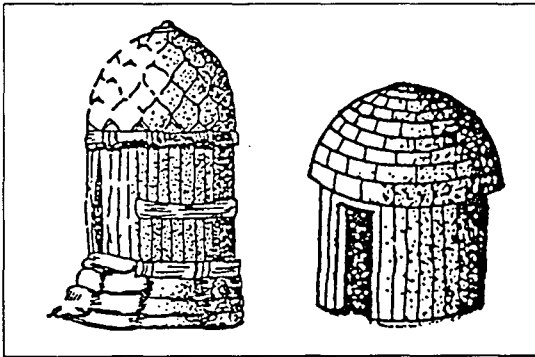


그림 4. 아리안의 Dome형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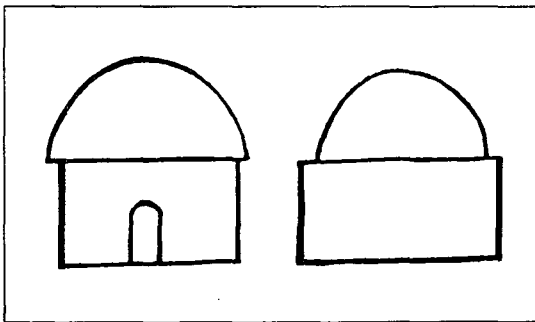


그림 5. Dome형 지붕과 Stupa의 시원형

- 35) Benjamin Rowland,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ndia Buddhist", Hindu, Jain. The Pelican History of Art, p. 473.
- 36)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Buddhist and Hindu Periods", pp. 2-5.
Satish Grover, "The Architecture of India, Buddhist and Hind",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p14
- 37) Irene N. Gajjar, "Ancient Indian Art and the West", p. 111-113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불탑의 초기형식과 관련 지어 인도의 고대유적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石窟과 石造遺物에 조각되어 있는 浮彫의 내용이다. 석굴의 건립연대가 밝혀진 것들은 아쇼카왕 때 만들어진 것들로 圓形室과 長方形室이 결합된 모습으로 소위 前方後圓의 형식을 하고 있다. 이들의 평면적인 모습으로서는 Atrous의 보물창고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나 축조방법이 서로 다르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이들이 과연 상호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들중 대표적인 석굴의 크기는 원형실이 직경 약5.76m이고 장방형실은 약10m×6m 가량 된다. 아쇼카왕 때 만들어진 석굴들은 Ajivika郊外에 있어서 수행자들의 雨期의 주거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후 이러한 석굴은 비슷한 모습을 한 불교용 Chaitya굴로 바뀌어 B. C 2C -A. D 1C 사이에 봄베이市 주변에 집중적으로 여러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석굴과 불탑의 형태를 관련지은 것이 다소 무리이나 半球形 돔과 형태면에 있어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굴의 입구에서 볼 수 있는 arch나 vault의 형태는 半球形 覆鉢 위에 平頭를 놓고 傘을 꽂아 놓은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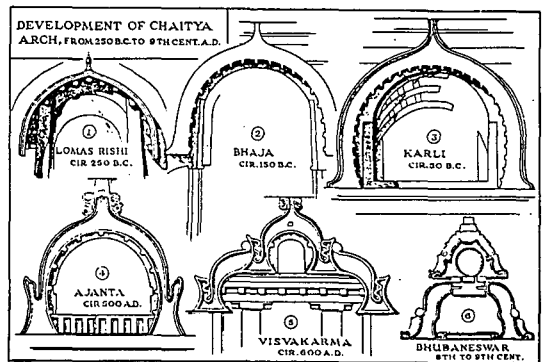


그림 6. 석굴사원의 아취형문

석굴보다 실제적인 모습을 뚜렷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석조유물에 조각되어 있는 浮彫들이다. 이들 중에서도 산치에 있는 제1탑의 南門에는

스투파형이 잘 조각되어 있어 당시의 스투파형식을 짐작하게 한다. 이 塔門은 석재로된 2개의 수직기둥에 3개의 수평부재가 끼워져 있는데 이들의 각면에는 코끼리와 스투파를 비롯한 다양한 내용의 부조가 새겨져있다. 탑문에 새겨진 스투파는 그 모습이 서로 똑같지는 않으나 형식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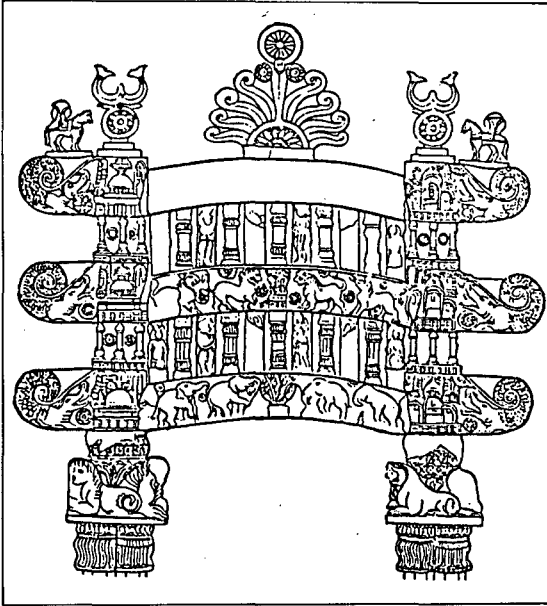


그림 7. 산치탑 탑문의 상부

일반적인 스투파형 부조의 모습은 台基를 1단 내지 2단으로 하고 그 상단에는 欄楯을 돌렸는데 난순이 없는 경우는 莊嚴用 장식을 하였다. 台基 위에는 반구형의 복발을 놓은 다음 平頭를 얹고 그 위에 다시 傘蓋를 세웠다.

산치의 현존탑들은 평두의 모습이 장방형의 책상과 비슷한 모습인데 비하여 이들 부조에 나타난 평두의 모습은 層段을 이루며 내쌓기한 위에 여러개의 傘을 수직방향으로 중첩시키거나 혹은 경사지게 꽃아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산의 주위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림 8. 참조)

결국 사리8분의 근본탑은 간단한 형태를 한 것으로 原形 峰墳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산치탑 까지 이르는 2-3백년 동안 스

투파에 그 당시 건축적 분위기에 맞는 재료나 형태 및 장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스투파의 의미상 제일 우선적인 納葬이라는 기능과 釋尊의 상징으로서 권위가 필요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복발부분을 보다 크고 안정되게 축조하였으며 至高, 天上, 天體의 상징으로서 圓과 球를 선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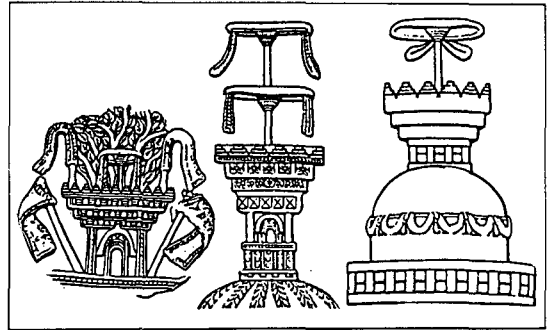


그림 8. 부조에 나타난 상운부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추정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釋尊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나 入滅直後에 건립된 탑파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탑의 시원형식을 정확히 알수없고 佛滅後 약2세기가량이 지난 Asoka왕때에 건립된것으로 탑파의 시원형식을 추정하고 초기탑파형식의 기본형으로 삼는 것이다.

3. 始原塔婆의 構成要素와 그 象徵的意味

불탑의 일차적의미는 석가의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묘이다. 그러나 탑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다양하고 그 구성요소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또한 간과할 수 없으리 만치 함축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다. 탑파는 열반후에 석가가 남긴 정신적인 체계를 건축적 구조물로 대신하는 것이다.

儀式과 정교한 기하학적 형태는 방향성을 결정해주고 정확한 비례체계는 각 부분과 전체에 대한 측정을 확실하게 한다. 불탑에서는 피라미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간결한 건축적형태와 질량감을 느끼게 한다. 불탑의 건축적 완결은 圓과 方의 균

형과 交互에 있는 것이다. 탑과건축의 불완전한 역동성은 성스러운 유적을 위요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확고한 우주적 구조체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불탑과 그의 장식들은 순수한 葬祭의인 기능이외에 정교한 상징주의와 관련되고 부분적이거나 西方아시아의 天地學(cosmography)으로 부터 줄기를 갖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규라트와 같이 탑의 기본개념은 우주의 건축적도형이다.³⁸⁾

인도탑의 초기형태는 산치탑, 소위 복발형으로 불려지는 정형화된 것으로 그림 9.와 같이 아래로 부터 基壇, 覆鉢, 平頭, 傘竿, 傘蓋등으로 구성되며 부가적으로는 上下의 繞道, 4개의 塔門, 欄楯(柵)을 두었다. 이러한 탑과구성요소들은 어떠한 기능과 의미를 갖는가. 단순한 기능외에 특별한 상징성과 의미는 없는가?인도의 고대인들은 스투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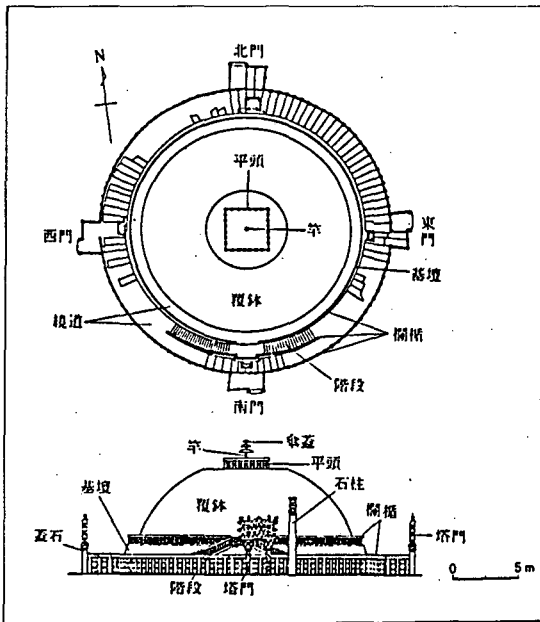


그림 9. 산치탑의 각 부 명칭

38) Benjamin Rowland, "The Art and Architectur of India Buddhist, Hindu, Jain". The Pelican History of Art, p. 79

가. 基壇 (medhi) : foundation, base

탑의 하부구조로 중국에서는 塔基, 基座, 基臺, 臺, 基, 壇으로 부르고 일본에서는 台基, 한국에서는 기단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원형의 것을 臺基, 방형의 것을 基壇이라고 구분지어 부른다.

기단은 건조물의 터전이 되는 壇을 지칭하는 말로 역사상 거의 모든 건조물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해주는 역할과 습기방지와 통풍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기단이 높으면 주변의 건조물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아지며 중심성이 강조되는 위계를 갖게되는 것이다.³⁹⁾

이 기단은 귀중한 것을 높이 「臺」와 「壇」위에 모셔서 경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권위의 상징이다. 天壇이나 지규라트, 마야의 피라미드등 거의 모든 성스러운 구조물들은 보다 높이 올려놓고 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즉 신과의 접촉이 가능한 곳으로 보는 것이다. 天上으로 인지되기도 하며 至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최초의 스투파에는 기단이 없었으나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는 기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⁰⁾ 그 후 一段이었던 기단은 2단으로, 다시 3단으로 변하고 간다라지방에서는 건축물의 기단형식으로 변한다. 즉 圓形의 기단이 方形으로 변하며 기둥과 벽, 바닥(床) 등의 기능을 갖는 구조체로 변하기도 한다.⁴¹⁾ 세일론에서는 상하의 기단으로 나누어지고 하부는 2중, 상부는 3중의 낮은 층으로 겹쳐져 있는데 이는 손목과 발목에 장식적인 링을 의미하기도 한다.⁴²⁾

기단의 상부에는 복도모양의 단이 있어 복발의

39) 라체화, 「한국전통건축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p. 34.

40)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p. 34.

41) Heinrich Gerhard Franz, "Stupa and Stupa-Temple in the Gandharan Region and in Central Asia", pp. 39-58.

42) L. A. Govinda, "Psycho-cosmic Symbolism of the Buddhist Stupa", p. 26.

하부와 이어지는데 이를 上部繞道(terrace or upper pradaksina patha)라 불러 지면에 있는 繞道와 구분할 수 있다. 이 상부요도와 하부요도의 외곽에는 欄楯이 둘러져 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기단의 외곽에 있는 원형의 단은 방형의 넓은 壇(Platform)으로 변모한다. 이 단의 수도 일단에서 수개의 단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안쪽의 단이 밖의 단보다 높다. 이 넓은 방형의 단은 그 위에 원형의 스투파를 올려놓아 天圓地方이라는 사상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기단외곽의 이 단을 탑과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이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없어 기단이라는 말과 다소 혼동이 된다. 한국의 탑과에서는 塔區라는 용어가 있으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도의 시원형탑이 극도로 축소되어 중국이나 한국탑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 기단이 한국탑의 상륜에 있어서는 露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나. 覆鉢(anda) : hemispheric cupola or dome

기단위에 얹은 半球形狀의 부분으로 마치 바리때(鉢)를 얹어 놓은 모양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인도의 시원탑에서는 탑의 주체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바리때를 얹어 놓은 모양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대당서역기에 석가가 사용하던 옷과 바리때와 석장등을 사용하여 탑을 건립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석가가 죽은 후에도 그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⁴³⁾ 불교에서는 鉢이 比丘의 사유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석가는 成道後 4주간이 되어 그때 2인의 상인이 과자와 우유를 봉납했다. 그러나 용기가 없음을 알고 四天王이 石鉢을 헌납하였다고 전한다. 아잔타석굴에는 석존에게 발을 헌납하는 그림이 있고 돈황에는 발을 들고 있는 석존도가 있다. 이러한 것은 발을 숭

배하는 관습을 의미하며, 아마라바티에서 출토된 佛鉢崇拜浮彫에서는 불발은 석존을 암시하는 불건중의 하나로 생각한다.⁴⁴⁾

복발의 형태는 흙을 둥그렇게 쌓아올린 분묘형에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돔형태의 주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등 다양하다.⁴⁵⁾ 사람이 사는 둥근 모양의 주거형태를 靈魂不滅을 믿어 죽은 사람의 집으로 한것으로 이는 산사람과 죽은 사람을 동일시하는 사상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원형은 하늘 모양을 본뜬 宇宙山으로 「長阿含經」에서 보이는 상징적인 불교의 極樂淨土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⁴⁶⁾

복발은 파괴와 창조,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모든것을 감싸주는 하늘인 무한대의 돔을 모방한다. 초기의 불교도들은 물방울이나 卵을 잠재적인 창조력의 상징으로 서 스투파의 복발에 비교하였다. 또한 복발은 알(卵)로 그 형태에서라기 보다는 인도에서 고대부터 태초에 물에서 탄생되는 〈황금의 알〉로 우주창조의 뜻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Anda는 고대인도의 신화에서 우주와 같은 뜻이었다. 세일론에서는 房(chamber)으로 혹은 지성소(Holy of Holies)로 번역된다. 힌두사원에서 지성소는 여성의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과거의 씨앗을 미래의 생명형태로 생성시키거나 변환시키는 어머니의 자궁처럼 창조력의 중심으로 간주된다. 그와 같은 기능은 卵에 의해 재현되고 이는 스투파의 돔에 적용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은 내용은 한국

- 44) 石田茂作監修, 「佛敎考古學講座 5」, pp. 147-149.
Heinrich Zimmer, "The Art of India Asia, Its Mythology and Translation", Vol. 2,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Bollingen Series, 34, p. 95. 上記 윤창숙의 논문에서 재인용함.
- 45) Irene N. Gajjar, "Ancient Indian Art and the West", pp. 111-113.
- 46) 杉本卓洲, 「インド佛塔の研究」, 東京平樂寺書店, 1984, pp. 192-219.
- 47) L. A. Govinda, "Psycho-cosmic Symbolism of the Buddhist Stupa", p. 8

43) 윤창숙, 전계논문, p. 43.

의 卵生說話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母性이라는 단어는 모든 사물과 모든 현상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잠재적이고 휴식하고 있는 삶이며 숨겨져 있는 활동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신비스러운 실체인데 과거(씨알)의 기억을 타고 났으며 잠재적인 힘으로 차있으며, 계속해서 주변환경에 발산되고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잠재력들은 자신의 삶과 활동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복발의 내부에 봉안되어 있는 솜씨는 쌀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생명력의 요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림 10. 과 같이 탑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하학적 구성요소는 球이고 구의 부분적인 인자는 圓이다. 탑과의 평면과 단면, 외양이 모두 원이다. 원은 집중의 상징이다. 원으로 이루어진 球는 여러 面의 힘을 조절하거나 관련된 힘들의 평형상태를 이루고, 긴장을 이완시키거나 그 자체 내에서 휴식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집중의 원칙인 것이다. 표면의 모든 점들은 중심과 동등하게 관련이 되고 각각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되며 외부적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소카왕이 만든 스투파의 복발은 일견벽돌이나 소성벽돌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지금의 모습은 Sunga왕조때 수리한것으로 표면을 벽돌의 형식을 한 돌로 쌓고 있다. 탑문에 나타난 부조에 의하면 이 복발에는 여러가지 장엄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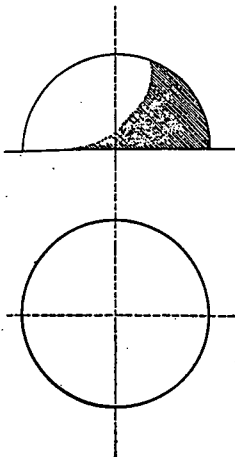


그림 10. 圓과 球에 의한 Stupa의 구성

다. 平頭(harmika) : kiosk

복발의 정상에 있는 평평한 箱子形의 부분으로 신성한 곳을 둘러싸는 울타리 안에 있다. 실제로 가장 신성한곳으로 여겨진다. 그 주변을 난순으로 둘러져 있다. 평두는 상부가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중국명칭으로 사리용기를 이속에 納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투파의 여러 유례를 발굴한 결과 복발의 중심부 아랫쪽과 기단의 윗 부분에 사리실을 설치하고 그속에 사리용기를 두고 보석류나 金薄葉등의 莊嚴具를 첨가하여 납장하고 있다.

평두는 일반적으로 신전 또는 궁전(天宮)으로 본다. 이 때에 궁전은 영혼이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신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⁴⁸⁾ 평두는 제단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골을 보관하는 용기로서 경배되었으며 죽음과 부활을 초월한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다. 번제를 드리는 제단으로서 이해한것이다. 이 번제는 자기희생과도 의미가 상통한다. 聖人들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자신을 세상에 희생시키는 것이다. 자기몸을 희생하고 여러조각으로 부서져 이 우주를 생성시켰다는 인도의 Veda시대 전설에 나타나는 Mahapurusa에 관한 얘기는 이를 의미하기도 한다.⁴⁹⁾ 부처는 이를 자기자신의 내적희생으로 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즉 “참된 가치는 단지 하나의 희생에 있다. 우리자신의 욕구에 대한 희생이다.”라 하였다.

그림 11. 과 같이 네팔의 스투파들은 인간의 눈을 그린 평두를 갖고 있다. 이는 스투파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평두를 불의 요소로 비교하는 개념도 있다. 불은 視覺, 즉 내면의 시각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단부에는 발을 꼬고 있으며, 복발에는

48) J. Przulski, "The Harmika and the Origin of Buddhist Stupa", IHQ, vol. 11. 1935. pp. 199-210.

高田修, 「佛敎美術史論考」,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1969, pp. 40-42.

49) Benjamin Rowland, op. cit., p. 473

몸이 어깨까지 이르고 있으며 평두에는 머리가 있다. 이는 정신적이고 생리적인 원리가 인간의 신체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물질적인 감각의 대상으로 부터 속제가 아닌 순수한 정신세계의 해탈로 오르는 것이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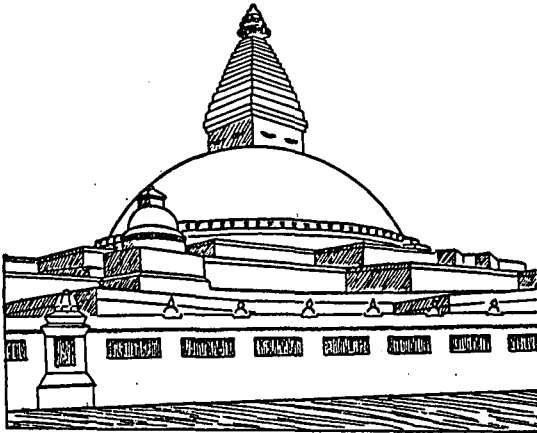


그림 11. 네팔의 Stupa

印度 시원탑의 평두는 중국과 한국, 일본탑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대신 양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평두가 변화되어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⁵¹⁾

이러한 수직체계에 따라 복발위에 있는 평두는 하나이상의 돌로된 성스러운 우산, 즉 산개와 산간에 의해 그 정상부를 장식한다. 또한 산치탑의 평두는 간단한 책상모양이나 부조에 나타난 평두는 층단을 이루는 모습을 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라. 傘蓋(chattra) ;honorific umbrella

목재 또는 석재의 圓板으로 우산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 생겨난 이름이다. 盤蓋, 寶蓋라고 부르기도 하며 韓國塔婆의 寶輪 혹은 寶蓋에 해당한다. 한국탑의 상륜부는 보륜이 있고 그 위에 보개가 있으나 인도의 시원탑에 있어서는 이들

이 나누어지지 않아 따로 구분지어 부르기가 곤란하나 보개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산개인 chattra는 산스크리트語로 日傘이라는 뜻을 가지며 그 어원은 chad-(shade, shelter)에서 유래되었다. 漢譯하여 蓋, 傘蓋, 繪蓋, 寶蓋, 天蓋, 日傘등으로 표현한다.

傘은 무더운 날씨인 인도에서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실용적인 의미와 함께 종교적인 권위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림 12. 참조) 이러한 예는 인도 뿐만 아니라 고대 에집트의 벽면, 앗시리아의 부조, 페르세폴리스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리스에서는 상위계급의 징표로서 사용되었고 중국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주어지기도 하였다.⁵²⁾ 불상위에 산개가 있는 예가 많고 天蓋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산개는 중국에서 불교전래 이전에 이미 <華蓋>라 하여 사용되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⁵³⁾ 왕의 머리위에 시종이 화개를 받쳐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高麗史의 기록과 평남 남포의 고구려시대 修山里壁畫에 日傘을 사용한 예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 日傘과 그 상징적 형태

산개의 의미는 중첩된 宇宙界面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권위의 상징으로서 다른 것 위에 있으면서도 동등한 평행을 유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깨달

50) L. A. Govinda, "Psycho-cosmic Symbolism of the Buddhist Stupa", p.5

51) 윤창숙, 전계논문, p.46.

52) Longhust, "The Story of the Stupa", 1936, Chapter 1, "The Umbrella as a Symbol of Religious Sovereignty."

53) 小杉一雄, 佛塔の露盤について, 佛教美術史研究 제9책, 東京, 早稻田大 大學美術史學會, 1942, 9쪽

음에 이르는 단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거대한 우주목에 걸쳐진 무수한 평면, 층층히 겹쳐진 보다 높은 세계를 나타낸다. 이는 佛界의 중심에 서있는 깨달음의 나무와 산의 정상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개념과도 융합된다. 이는 다시 부처가 우주의 중심에 서있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⁵⁴⁾

산개와 산간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상륜부는 우주목을 가장 간단히 줄여놓은 형태이다. (그림 13. 참조) 즉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축인 것이다.⁵⁵⁾ 또한 이는 고대사회에 있어서 태양승배의 의식을 행하는 “의식용 깃대”와도 상통되는 것이다. 즉 왕과 같은 고귀함의 상징인 우산은 우주의 지배자로서 강력한 힘을 갖는 왕과 성스러운 축과 우주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성스러운 나무의 가지로 빛을 가리는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네팔에서는 산개와 산간 대신에 살아 있는 나무를 탑꼭대기에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부조에도 나타난다.



그림 13. 宇宙木의 추상적 표현

산개는 원칙적으로 원형이나 시대와 지역에 따라 형태가 다르고 1개만이 아니라 3개를 위로 중첩하고 있으며 후대에는 13개 이상의 산개가 겹쳐져 있는 예를 볼 수 있다. (그림 14. 참조) 불경에는 1, 2, 3, 4 내지 13개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⁵⁶⁾ 또한 산개의 수를 13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급에 따라서 그 수를 정한것으로 보여진다.⁵⁷⁾ 대당서역기에는 카니시카탑은 25륜이었다고 되어 있어 그 수는 항상 일정하지 않은것 같다. 산개와 산간으로 이루어지는 상륜부는 일반적으로 1본이나 부조와 불상 주변의 장식에 나타난 탑과에서는 3, 4, 5본인 경우도 있다. 즉 인도의 경우는 중앙의 1본은 수직으로 똑바로 서있으나 양쪽의 2본은 비스듬하게 누워있고 그 끝에 幡을 달고 있는 경우와 三本 모두 수직으로 서있는 경우가 있다. 번은 불전내의 기둥이나 佛, 菩薩의 위덕을 알리는 장엄구인데 깨달음과 降魔의 표시로 세운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3, 4, 5본의 상륜을 세워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장식적인 소형탑으로 실제의 탑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륜이 1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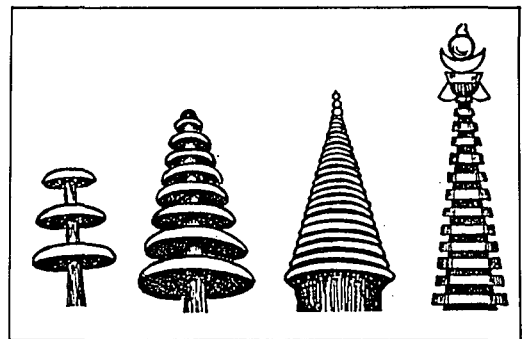


그림 14. 傘蓋의 다양한 형태

54) L. A. Govinda, "Psycho-cosmic Symbolism of the Buddhist Stupa", p.8

55) John Irwin, "The Axial Symbolism of the Early Stupa", "The Stupa: its religious, history,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Wiesbaden: Steiner, 1980. p.15

56) 『大正藏』 제24권, 『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 제 18, p.291下

57) 8중은 如來, 7중은 菩薩, 6중은 緣覺, 5중은 羅漢, 3중은 斯陀舍, 2중은 須陀含, 1중은 轉輪王, 일반 교도의 무덤은 상륜이 없는 것이다.

마. 傘竿(yasti, yupa, svaru⁵⁸⁾; pole or staff
 산간은 산스크리트어로 yupa라 하는데 베다성
 전에는 여러신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세
 운것으로 꼭대기에 제물용 동물을 메다는 기둥,
 즉 祭柱를 뜻한다.⁵⁹⁾ 티베트語로 srog-sing라
 하는데 life-wood로 직역할 수 있으며 생명의 나
 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고대사회의 전통에 나타
 나는 여러종류의 성스러운 나무들 가운데에 근본
 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나무들은 Tree
 of Life, Wishing Tree, Tree of Paradise등으
 로 이들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며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우주가 생성된 중심의 위치
 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이 생명의
 나무(우주목)는 보리수와 관계를 지을 수 있으
 며⁶⁰⁾, 또한 기독교의 십자가와도 관련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¹⁾ 또한 한국의 짐대나
 솟대의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산간은 平頭 위의 중앙에 복발까지 파고들어가
 세운 봉으로 여러개의 傘蓋가 積重되어 있다. 傘
 竿은 초기에는 대부분 木材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석재로 변한다. 韓國塔婆의 擦柱에 해당한다. 傘
 을 세우는 棒 즉, 傘竿을 하나로 하는 것은 원시
 적인 묘에서는 아마 안전을 기원 하는 뜻으로 地
 神에 지내는 고사인 地鎮, 즉, 土地神을 모시는
 의미이고 大地에 棒을 세워서 棒上에 供物을 얹

은 풍습이 있는 것이 stupa에도 계승되었기 때문
 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예는 고대사회의 태양승
 배신앙에서 나타나는 깃대의식(sacrificial post)
 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세계의 중추내지는 “생
 명의 나무” “宇宙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
 으며 宇宙軸으로 天과 地를 연결하는 것으로 표
 현되고 있는 것이다.⁶²⁾ 고대인들은 나무에 대한
 것을 신성시여겨 우주목, 우주축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두는 것이다. 우주축은 우주하부의 물
 로 부터 淨火로 이루어진 天上界로 이어지는 것
 이다. 즉 인간과 聖界를 연결시켜 주며 우주적 질
 서를 인간이 사는 지구상에 부여해주는 것이다.⁶³⁾

이 산개가 중첩되어 소위 상윤부가 높아지면
 이는 새로운 힘을 갖게된다. 스투파의 일반적인
 외양은 더 이상 뚝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고 상승
 하는 움직임에 의해 결정된다. 탑과의 모습이 높
 아지게 된다. 즉 하부구조가 중층으로 되었으며
 복발이 좁아지고 평두가 커지며 상윤부가 길어졌
 다. 따라서 종교적 조망의 방향이 과거로 부터
 성장하는 미래로, 완성된 부처의 이상으로 부터
 지향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세상 그 자체로 부터
 성취되어야 할 저 세상으로 바뀐것이다. 이는 수
 직적으로 발전하는 지향성을 지닌다. 외부적으로
 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정
 성을 지닌다.⁶⁴⁾

탑과에서 복발은 달을 숭배하고 모성적인 Siva
 와 관련이 있지만 이 상윤부는 수직적이고 태양승
 배적이며 남성적인 Vishnu의 의미를 지닌다.⁶⁵⁾

이 산간의 변화된 예로 특이한 것이 있다. 마투

58) John Irwin, The Axial "Symbolism of the
 Early Stupa", "The Stupa : its religious,
 history,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Wiesbaden :
 Steiner, 1980.

59) 中村 元, 『圖說佛敎語大辭典』, 270쪽.

60) Cunningham, A., "Archaeological Survey
 Reports", vol. 3, Calcutta, 1871, p. 103.
 Satish Grover, "The Architecture of India,
 Buddhist and Hind",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p. 42.

61) John Irwin, "The Axial Symbolism of the
 Early Stupa", "The Stupa : its religious,
 history,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Wiesbaden : Steiner, 1980. p. 29.

62) 杉本卓洲, 『インド佛塔の研究』, 平樂寺書店, 1984, 193
 쪽

63) John Irwin, "The Axial Symbolism of the
 Early Stupa", "The Stupa : its religious,
 history,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Wiesbaden :
 Steiner, 1980.

64) L. A. Govinda, op. cit., p. 45

65) Anagrika B. Govinda, "Some Aspects of Stupa
 Symbolism", 1940, p. 2.

라부근에서 발견된 1-2세기경의 것으로 석조로 된 것이다. (그림 15. 참조) 지하에 묻힌 부분은 방형이고 거치르며 중간부분은 8각형으로 줄로 올라가미를 하여 공물을 메었다. 끝부분은 굽어져 있고 그 끝에 밀로 만든 바퀴나 가락찌를 붙였는데 이는 태양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다.⁶⁶⁾ 지하에 묻힌 방형의 부분은 의식수행자가 땅속에 남아있는 선조의 세계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팔각부분은 공간적인 영역을 나타내고, 최상부는 천국을 의미한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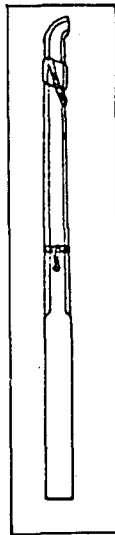


그림 15. 傘干의 예

이러한 기둥과 바퀴와 태양의 상징과 밀의 관계는 세계 도처에서 의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켈트족의 태양의식에서는竿 꼭대기에 밀로 만든 둥그런 떡을 올려놓고竿 주

위를 춤추며 도는 의식이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교차로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성스러운 나무에서 그 형상을 따온 십자가의 꼭대기 위에 밀가루로 만든 신을 모셔놓은 곳에서 의식을 행한다.⁶⁸⁾

결국 산간은 우주목으로서 생명의 나무로서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축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며 이러한 의식과 상징성이 간을 세우고 조각하는 행위로 남는 것이다.

바. 繞道(Prodakshina patha); circumambulatory path

스투파기단의 아래와 위에 원형으로 돌려져 있는 순회용 길을 말한다. 그 외곽은 난순이 돌려져 있다.

塔婆에 예배드릴 때에는 塔婆 주위를 右回하여 旋回하는 것이 의례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반드시 繞道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塔婆의 승배가 성하여 감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더불어 基壇의 폭이 넓어져 기단의 아래와 위에는 上下 2段의 繞道가 사용되었다. 上部의 요도에 오르기 위하여는 南門의 안쪽에 계단이 설치되었다.

경배자들이 동쪽의 문을 통하여 경내에 들어오면 경배를 위한 의식으로 요도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이는 태양이 하늘을 지나는 궤적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 이전의 태양신화나 태양 승배에서 후에 차용된 부처의 정신적 행적으로 이해된다.⁶⁹⁾

사. 欄楯(vedika) : stone fence, railing

上下의 繞道와 平頭 주위를 돌린 欄, 즉 난간을 말한다. 繞道의 주위에는 원래 대부분 木造欄을 돌린 것 같으나 그것이 나중에 石造辦으로 바뀌었고 欄의 표면에 浮彫를 가했다. 이 欄을 한

66) Vogel, J. Ph., "The sacrificial posts of Isapur." In: Annual Report 1910-11,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pp. 40-48.

67) John Irwin, "The Axial Symbolism of the Early Stupa", "The Stupa: its religious, history, and architectural significance." Wiesbaden: Steiner, 1980.

68) Robertson, J. M., "Christianity and Mythology", London, 1936, p. 372.

69) Benjamin Lowland, op. cit., p. 79. Havell, "Vedic Chandra Cult and Stupa", Handbook of Indian Art, 1920, Chap. 2.

자로 欄楯, 高欄 또는 欄干이라고 한다. 이처럼 예배대상물의 주위에 欄楯을 둘러 것은 신성해질 장소를 구획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신성한 것을 莊嚴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속된 세계로부터 성스러운 장소로 분리된 것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며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경배자들의 심성을 준비하게 한다. 이들은 표면에 재앙을 막기 위한 상서로운 문양과 부처와 飜린된 내용들로 장식되어 있다.

이 난순은 4방향의 탑문과 같이 구역을 설정하고 의식을 행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불교이전의 메소포타미아나 베다에서 기원한 태양숭배의 사상과도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⁷⁰⁾ 또한 인도의 고대 아리아족의 마을에서 목재와 대나무로 마을의 외곽을 돌리고 출입문을 설치하였는데 이로부터 난순과 탑문이 기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⁷¹⁾

이 난순은 4개의 탑문에 의해 4방에서 분리가 되는데 그 4分圓은 16개의 기둥으로 나누어진다. 시원탑에는 난순이 없었고 단지 장식으로만 조각되어 있었다. 현재는 초기의 것이 목조였기 때문에 없어지고 石造로 대체된 것이 남아 있는데 목조였던 시대의 구조방법이 잘표현되어 있다. 즉, 위에 笠石(ushnisha)이 가로 놓이고 이것을 지탱하는 垂直의 束石(또는 石柱, thabha)이 서있고 束石과 束石사이를 연결하는 볼록렌즈모양의 단면을 갖는 貫石(suchi)이 대개 三段정도 수평으로 되어있다. 이들 笠石, 束石, 貫石에는 浮彫를 가한 것과 없는 것의 2종이 있는데 없는 쪽은 木構造의 直寫에 가깝고, 있는 쪽은 발전된 모습으로 장식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浮彫를 첨가한 것이다(그림 16.).

이 石欄楯을 사용한 것의 기원은 木造柵만이 아니고 先史時代의 墳墓등에 있어서 s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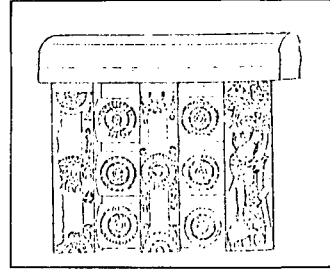


그림 16. 난순의 浮彫

circle이 遠因이 아니었나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들은 원과 원, 혹은 점과 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중심이 실체화되었고 중심이 집중화되어 있다.⁷²⁾ 이러한 관계는 영국의 스톤헨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천문학자인 G. S. Hawkins는 스톤헨지를 태양의 고도와 달의 주기를 계산하는 고대의 컴퓨터라고 하였고, L. E. Stover와 B. Kraig는 장레센타라고 하여⁷³⁾ 스투파가 갖는 배치형식과 기능에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시간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시간의 경과를 의미화하여 예시해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도 강한 것이다.

아. 塔門(Torana); entrance-gate

난순에 부가적으로 설치된 문으로 東西南北의 4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이 탑문은 난순이 설립된 다음에 설치되었으며 난순으로 부터 몇 피트가량 떨어져 있다. 그림 17. 과 같이 출입구의 위치가 난순으로 부터 굴절되어 있음은 요도를 따라 탑을 순회하는 순례자들의 프라이머시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며 나중에는 효과적으로 안전을 보호해 주기 위함이다.⁷⁴⁾

70) Benjamin Rowland,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ndia Buddhist, Hindu, Jain". The Pelican History of Art, p.79

71) Satish Grover, "The Architecture of India, Buddhist and Hind",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p15.

72) Winand Klasse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P.6

73) Dora P. Crouch, "History of Architecture", p.8

74) Satish Grover, "The Architecture of India, Buddhist and Hind", VIKAS Publishing House PVT LTD,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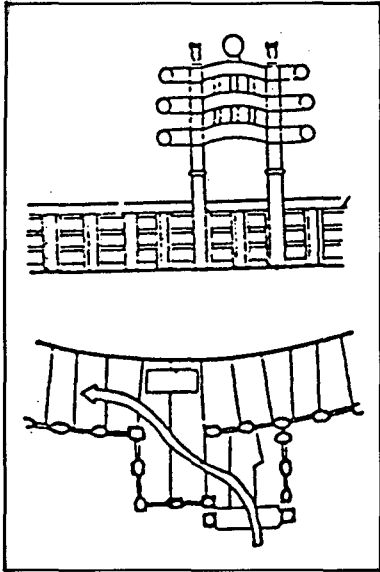


그림 17. 塔門의 골절

이 문들은 Buddha-Dharma의 우주적인 정신 세계를 강조한 四界로 향하여 개방된것으로 모든 존재에 대하여 와서 보라고 초대한다. 난순과 탑 사이의 내부공간 즉 요도와 복발하부인 기단위의 上繞道는 태양괘도의 방향으로 儀式的인 순회를 하는 것으로 이용된다. 그림 18. 과 같이 문의 방향은 日出(Sunrise), 天頂(Zenith), 日沒(Sunset), 天底(Nadir)와 일치한다. 태양이 천체를 밝힘과 같이 뻗치는 정신세계를 밝힌다. 東門은 부처의 탄생, 남문은 깨달음, 서문은 法輪의 시작과 교의의 선포, 북문은 해탈과 해방을 의미한다.⁷⁵⁾

이 문들은 Swastika의 네팔처럼 그 팔들이 대지에 나타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건축되었다. 아름답게 조각된 문들은 난순의 장식중에서 가장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닌다.

현존하는 石造 遺例가 극히 적지만 浮彫에는 현존하는 예에 준하는 모습이 흔히 보인다. 어쨌든 2本の 柱上部에 완만한 波形을 나타낸 수평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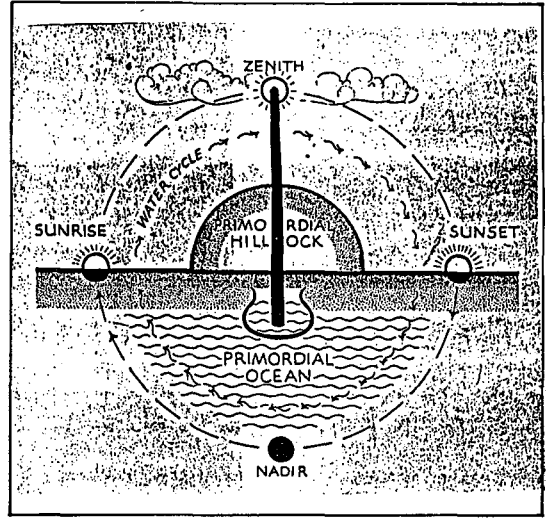


그림 18. 태양괘도와 塔門

재가 대개 3本 가로질러 있고 때로는 2本 혹은 1本의 것도 있다. 塔門의 경우도 목조에서 석조로 만든 것이 출현함에 따라 각 부재의 표면에 무수한 浮彫를 첨가하고 있었던 점은 石造欄楯과 같은 모습이다.⁷⁶⁾

4. 塔婆의 意味(結語)

탑과는 先史時代墳墓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는 기념물로 불교가 번성하였던 곳은 어디든지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이 분묘들은 半球나 圓錐, 피라미드(方錐形)와 같은 큰 구조물이거나 간단한 입방체로 성자나 왕, 영웅등의 유물을 매장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부처의 스투파로 부터 반구형에 가까운 형태의 분묘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부처 이전에 고대 아리아인들의 전통에 따라 위대한 지도자들을 위해 건립된것이다. 부처는 그의 제자인 Ananda와의 대화에서 “그

75) L. A. Govinda, "Psycho-cosmic Symbolism of the Buddhist Stupa", p. 8

76) John Marshall, Alfred Foucher, "The Monuments of Sanchi", Swatti Publication. plate no. 7-105.

들은 교차로에 王中王의 무덤을 세운다”라고 하였다. (Digha Nikaya 14, 5.) 그곳에는 화환과 향료와 색칠로 꾸며져 있고 경배를 하게 하였다. 또한 그곳에서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즐거움이 오래 지속된다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부처는 스투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스투파는 더 이상 영혼의 거처나 선사 시대의 신비스러운 실체를 모시는 단순한 저장소가 아니다. 성인들의 인간성을 다음 세대에 다시 생각나게 하며, 자신과의 내적투쟁을 하거나, 그들의 심성을 안정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위하여 성인들의 예를 따르게 하는 기념물인 것이다. 따라서 스투파는 죽음에 대한 의미에서 삶에 대한 의미로 高揚된 것이다. 그 의미는 특별한 유적이거나 인물에 집중되어 남아 있지 않고 성인에 의해 실현되는 보다 높은 실체인 것이다.

부처는 “스투파는 나와 나의 제자들을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들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건립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즉 부처자기를 믿지 말고 法과 네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뜻이다. 따라서 스투파들은 영웅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인 것이다. 깨달음은 광대함에 있어 바다처럼 깊고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스투파의 우주적 상징성으로 표현된다. 스투파안에 우주적체계와 생명력이 불어 넣어져 있는 것이다.

부처가 열반하고 다비한 후 그의 사리를 모아

봉안한것이 탑이다. 탑은 결국 사리를 묻는 무덤이다. 탑은 열반을 의미한다. 탑이 부처이다. 불상을 만들수 없었던 無佛像시대에는 부처의 열반을 탑으로 상징하였고 신자들은 위대한 성자의 무덤에 경배를 드렸다. 그러나 석가는 열반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아니라 법을 지시하였으므로 사리가 아니라 경전으로 탑의 성격이 바뀐 경우도 많다. 즉 진리 자체에 경배의 의미를 둔 것이다.

그러나 스투파의 형식이 半球形에서 架構의기단을 갖는 형식으로 변하자 감실이 생기고 이곳에 불상을 안치하게 되며 탑과에는 사리, 경전, 불상이 봉안되거나 장식되었다. 이들은 형이하학적 물질이지만 강한 의미와 상징성을 갖으며 불변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킨다.

스투파는 부처가 열반하고서 남긴 정신세계를 건조물로서 대신한것이다. 인간적인 부처를 떠나 法身으로 향하는, 이상적이며 절대적인 진리로 향하는 실체인 것이다. 따라서 중생들은 스투파 숭배를 함에 있어 부처에 대한 공양과 동시에 공덕을 쌓고자 한것이다. 또한 탑을 세움으로서 正覺을 이루고 解脫을 이룰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생들은 부처라는 위대한 성인이 설법한 진리를 깨닫고자 하였으며 극락세계로 가버린 그를 영원히 기리고 진리의 상징으로 그의 분묘를 열심히 장엄하고 많은 탑을 만방에 세워 널리 진리를 편 것이다.

Semantic Analysis of Indian Original Stupa

— 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nsmission and Style of the Buddhist Pagoda I —

Cheon, Deuk You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Wherever Buddhism has flourished, there were stupas in the form of monuments which have their origin in the tumulm of prehistoric times.

After the death of Buddha, his body was cremated following the Indian funeral custom. His ashes, which long reserved for the remains of nobles and holymen, were enshrined under such artificial hills of earth and brick.

The Stupa was in origin a simple burial-mound. The form of the burial-mound was a symbolical or magic reconstruction of the imagined shape of the sky, like a dome covering the earth. The domical form of the earliest tumuli may have been concious replicas of the shape of the Vedic hut. There are relationships which may have originally existed between the stupa and West Asiatic monuments.

Buddhist Stupa originally cosisted of an almost hemispherical tumulus(anda) and an altar-like structure(harmika) on its top, surmounted by one or several superimposed honorific umbrellas(hti, catta). This hemispherical form is associated with centralisation, lunar worship, mother earth, and Siva. Anda means a symbol of latent creative power, the harmika symbolizes the sanctuary enthroned aboved the world. The honorific umbrella, as an abstract imitation of the shade-giving tree is one of the chief solar symbols and that of enlightenment.